

# 와이브로 사업자, KT-SKT-하나로 선정

정통부, 2월말 허가서 교부 및 주파수 할당

언제, 어디서나, 이동중에도 초고속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(휴대인터넷) 사업자로 KT, SK텔레콤, 하나로텔레콤이 선정됐다.

정보통신부는 1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와이브로 사업허가 신청을 한 KT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.

허가심사 결과 KT가 100점 만점중 85.169점으로 1위, SK텔레콤이 82.356점으로 2위, 하나로텔레콤이 79.962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.

지난해 12월 와이브로 허가신청을 접수했으며 같은 달 자격심사에 이어 올 1월 일시출연금 및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정책심의위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.

자격심사에서는 3개법인 모두 외국인 지분한도(49%) 초과여부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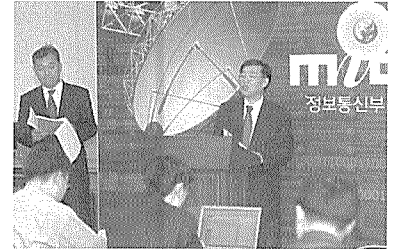
이어 진행된 일시출연금 심사는 지난해 11월 주파수할당공고시 정부가 정한 출연금 제시금액 심사결과로, 상한액인

1,258억원을 제시한 KT에게 2점, 하한액인 1,170억원을 제시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에게 1점을 부여했다.

또한 올 1월 중순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, 학회, 회계법인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사업계획 심사를 실시했다.

2006년 상용화 될 휴대인터넷 사업자로 KT, SK텔레콤, 하나로텔레콤이 선정되었으며,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이 1월 20일 오후 브리핑실에서 사업자 선정내역을 설명하고 있다.

정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심사를 위해 연구기관, 시민단체 등 19개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해, 이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39명의 전문가 중 허가심사 경험,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영업부문 8명, 기술부문 7명 총 1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.



(출처: 정보통신부)

## 광주시 LED밸리 조성 '가속페달'

광주시가 추진중인 발광다이오드(LED) 밸리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.

1월 23일 관련기관 및 업체에 따르면 광주시가 올해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1,130억원을 투입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조성할 LED 밸리사업에 국내·외 LED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. 또 LED 집적화를 중점 추진할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추진 사업도 이달부터 본격화된다.

한국광기술원과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주축이 된 LED 밸리 조성사업에는 현재 20여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광기술원에는 에피밸리·에피플러스·포스포 등 10여개 LED 업체가 연구소나 기업을 설립한 상태며 광주테크노파크 LED·LD패키징시험생산기술지원센터에는 최근 라셈텍·한국신광·마이크로에렉트로닉스·광은전자 등이 가세하면서 입주업체가 10개사로 늘어났다.

특히 지난 1월 18일부터 미국 애질런트가 고휘도 LED 생산 및 연구기지 설립을 위한 실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국내 굴지의 LED업체인 L·N사 등 2개사도 조만간 광주 현

지를 방문해 공장 및 연구소 설립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.

이처럼 LED 밸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 최종시기인 오는 2008년까지 당초 목표한 100개 업체는 무난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시는 또 첨단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LED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.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30명 규모의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해 LED 집적화 및 창업입지 지원, LED조명기술 연구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.

LED 집적화 및 창업입지 지원을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임대단지조 조성해 반도체 조명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LED 조명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제품 제작과 시험생산 기술개발, 개방형 벤처실험실 등이 구축된다.

(출처: 전자신문)